

코로나 재유행에도 4차 접종 꺼린다

“3차까지 맞고도 감염·변이 기승에 백신 효과 의문” “맞춤 개량 백신 나오는 가을까지 기다릴까 고민 중” 정부, 피해보상액 상향하며 접종률 높이기 안간힘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정부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본격화했지만 접종을 꺼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3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돌파감염으로 코로나에 걸린 경우가 많고, 코로나 하위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맞춤형 개량 백신이 올 가을 나온다는 소식에 4차 접종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4차 접종은 지난 2월 면역저하자, 요양 및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시작돼 4월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지난 18일부터는 대상이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5일 0시 기준 4차 접종을 마친 광주시민은 16만 6944명으로 접종률은 11.6%에 그치고 있다. 특히 50대의 접종률은 3.6%에 불과해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접종 대상을 확대한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의 백신 1차 접

종률 87.8%, 2차 접종률 87.1%와는 비교할 수 없고 3차 접종률 67.1%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4차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돌파감염에 대한 경험과 기존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및 부작용 우려에 더해 조만간 나올지 것으로 예상되는 개량 백신 때문이다. 직장인 윤모(56·광주시 북구)씨는 “3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돌파 감염돼 휴직을 치렀던 적이 있어 백신 효과를 모르겠다”며 “결렸어도 또 걸릴 수 있다며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 접종을 맞아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4차 백신을 예약한 유모(55)씨는 “오미크론 변이에 현재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약 취소를 고민중이다”면서 “올 가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이 맞춤형 개량 백신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모(58)씨는 “백신 부작용 발생률이 매우 적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4차 접종은 3차 접종 이후 일정기간(120일) 동안 맞았다고 하니 굳이 빨리 접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 4차 접종률이 기대 이하로 낮아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액수를 대폭 늘렸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가시화되는 만큼 건강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1~3차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50~60대에게는 백신 접종 효과가 큰 편이고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접종을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코로나 백신 ‘방문접종팀’ 운영

10명 이상때 행복센터 방문

광주시 동구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방문접종팀’을 운영한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전파력이 높은 신종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4차 예방접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문접종은 4차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 10명 이상이 모집되면 방문접종팀이 직접 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대상자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로 4차 접종을 희망하는 지역 대상자들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는 앞으로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과 연계해 4차 접종 독려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동구청 누리집 및 동구 두드림을 통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3차 접종자와 올해 초 오미크론 감염자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영산강청, 바다분수·인공폭포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바다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안전 관리 실태를 8월 19일까지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수경시설 133곳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 일정 규모 이상 시설(바닥면적 100㎡ 이상), 신규 신고시설을 중심으로 30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영기간 중 수질검사 실시(15일마다 1회 이상) 및 수질기준(수소이온농

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준수 여부, 수경시설 수심 유지(30cm 이하),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및 용수 교체,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이용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안전관리 집중 점검을 통해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명한 하늘 장맛비가 그친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광주읍성터'에서 바라본 하늘이 목은 먼지를 씻어낸 듯 청명하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열대야 현상도...오늘 소나기

광주·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그치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를 비롯해 나주, 여

수, 담양, 화순 등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다만 흑산도, 흥도, 거문도, 초도 등 일부 섬 지역은 제외됐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당분간 광주·전남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체전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장맛비 소식도 끊겼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26일 광주·전남 곳곳에 5~40mm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 질환에 주의하고 격렬한 야외활동, 나홀로 작업 등을 자제할길 바란다”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수 외국인에 지역비자 먼저 발급

법무부, 지자체 인력 수요 반영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정책인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다. 고품화한 지방에 노동 인력 및 인재를 공급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또 제도

정식 시행에 앞서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8월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